

도쿠토미 로카 『흑조(黑潮)』 고찰*

- 시대인식과 사회비판 양상을 중심으로 -

김난희**
knh2765@jejun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정경유착과 언론 |
| 2. 두 개의 『서문』과 시점인물로 본 시대인식 | 3.3 축첩제와 가정 비극 |
| 3. 로카의 사회 비판의 양상 | 4. 마치며 |
| 3.1 서구화 정책과 로쿠메이칸 | |

主題語: 로카(Roka), 흑조(Kurosio), 사회비판(Social criticism), 인도주의(Humanism)

1. 들어가며

일본 근대문학 여명기에 독자적인 사회의식을 보인 작가로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 이후 로카)를 들 수 있다. 로카는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메이지 신정부를 향해 신랄하게 비판한 작가이다. 1910년 대역사건(大逆事件) 때는 삼엄한 시기에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구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용기를 보였다.¹⁾

원래 도쿠토미 집안은 구마모토(熊本)의 유서 깊은 호농(豪農)사족(士族) 집안으로서 요코이 쇼난(横井小楠)²⁾의 개화사상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개명적 분위기 속에서 소호와 로카

* 이 논문은 2016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로카는 대역죄인 변호를 위해 가쓰라(桂) 수상과 천황에게 탄원하는 글을 신문에 보냈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모반론(謀叛論)은 이와 관련하여 제일고등학교(一高)에서 행한 연설의 초고(草稿)이다. 대역사건은 1910년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를 포함한 24명의 무정부주의자들을 검거하여 그 중 12명을 대역죄의 명목으로 재판도 없이 처형한 날조된 사건이다. 이에 격분한 로카는 변론부 학생가와카미 조타로(河上丈太郎: 1889-1965)의 강연 제의를 수락하여 1911년 2월1일 시국연설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1학년에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등이 재학 중이었으며,가와카미는 동대 졸업 후 제1회 보통선거에서 노동당 소속으로 당선된다. 아쿠타가와와 글에는 로카에 대해 호의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 요코이 쇼난(1809-1869): 구마모토 번사(藩士). 막말의 유학자·개국론자이다. 메이지유신 10걸 중의 1명이다. 메이지 신정부의 ‘참여(參與)’가 되었으나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암살당한다. 요코이 쇼난의

형제는 평민주의·인도주의에 일찍 눈을 떴다.³⁾

로카는 22세에 상경하여 형 소호(蘇峯)가 운영하는 잡지사 <민우사(民友社)>에 입사하게 되는데, 이 때 해외의 사정을 알리는 각종 영문(英文)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저널리스트적인 시야를 기르게 된다.⁴⁾ 민우사에 몸을 담은 14년 동안(22세~35세)의 기자(記者) 생활은 당대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첨예한 사회의식을 지니게 한 하나의 동인으로 생각된다.

로카의 『후조』는 일본근대문학에서는 정면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인 메이지 신정부의 암부(暗部)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사회소설이다. 로카는 당시 지배층의 부패상과 맹목적인 서구추종, 그리고 제국주의로 치닫는 행태를 직시하면서 이런 정책이 일본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발표당시 실존인물의 부패상을 해부한 것이어서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문제작이다. 그래서 「국민신문(國民新聞)」(1902.1.26~6.29)에 연재할 당시 세간의 평이 좋지 않았다. 이에 로카는 자신이 직접 출판사 <흑조사(黑潮社)>를 설립하고 1권(1903년)을 자비로 간행한다. 총6권 계획으로 집필을 시작했으나 1권만을 간행한 채 후속 작품은 중단되고 만다.⁵⁾ 이는 집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로카의 심경에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추론한다. 하지만 『후조』는 1권만으로도 그 안에 들어있는 로카의 시대인식과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작품의 권두에는 2개의 독립된 글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꿈의 형식을 빌린 글이고 또 하나는 형에게 보내는 결별의 편지글이다. 본고는 편의상 이를 두 개의 「서문」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서문」에는 작가의 집필의도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으며 향후 일본의 지향점이라는 작가의 비전이 나타나 있어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서문」에 나타난 작가의 육성으로 표현된 시대인식과 소설 『후조』의 등장인물이 전하는 시대인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메이지초기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작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논자는 작품 속에 나타난 로카의 사회비판의 양상을 맹목적인 서구화정책·정경유착과 언론·축척제도로 대별해 보았다.

아내는 로카의 이모 쓰세코(津世子)이다. 로카의 제자인 마에다가와(前田河広一郎)는 로카의 도의적 문학관에는 쇼난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前田河(1938)『蘆花伝』p.388)

- 3) 로카는 18세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고 기독교 세례를 받는다. 기독교의 일부일처의 도덕은 로카의 어머니와 그 자매들 까지도 기독교 세례를 받도록 인도한다.
- 4) 로카는 형 소호의 지침에 따라 평민주의를 표방한 19세기 영국정치가 『존 브라이트』와 『리처드 콕튼』을 소개하는 글을 ‘민우사’에서 간행, 그밖에 서구의 저명인사를 소개하는 기사를 써 왔다. 또 일본에서는 최초로 톨스토이 평전 『톨스토이』를 저술했다. (『톨스토이』는 ‘민우사’가 기획한 12문호 시리즈 중 1권임) 『富士』3권 참조
- 5) 『후조』 제2권은 1905년 12월에 기독교 계통 잡지 「신기원(新紀元)」에 발표를 시작했으나 중단하고 만다.

『흑조』의 선행연구는 일본의 경우 입수할 수 없었다. 최근 『흑조』가 한국어로 번역(6)되면서 한국 신소설 『은세계(銀世界)』와의 비교연구(7)가 나왔으나 한국과 일본의 근대 작품 속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과 인물(김옥균과 이토 히로부미)을 비교하고 있었다. 본고는 『흑조』라는 텍스트 자체를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서 이들과 차별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로카는 비교적 일찍 한국에 알려진 작가로서 로카에 대한 초창기 연구는 『不如歸』로 시작되었다. 『不如歸』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소개되었는데, 일재(一齊)조중환(趙重桓)이 『불여귀』(1912)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한 바 있으며 신파연극으로도 상연되어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이다. 『불여귀』와 관련한 한국의 연구는 주로 한국 신소설(新小說)과의 연관성 또는 문체(文體)에 관한 연구(8)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로카에 관한 국내의 최근 연구로는 「모반론」(9)과 수필 『자연과 인생(自然と人生)』을 고찰한 논문(10)이 있다. 그리고 『자연과 인생(自然と人生)』 『청산백운(靑山白雲)』 『청로집(靑蘆集)』을 <자연삼부작(自然三部作)>으로 명명하고 고찰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11)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로카의 『흑조』(1903)는 『불여귀』(1900)의 연장선에 있는 사회소설이며, 『불여귀』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사회를 해부하고 있는데 주목했다.

본고는 텍스트 자체가 함의한 문맥을 분석하면서 다성적(多聲的)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텍스트는 로카전집 간행회에서 1928년에 펴낸 도쿠토미 겐지로(徳富健次郎)저 『黑潮』(蘆花全集7권)를 사용했으며 번역본(12)을 참조했다.

2. 두 개의 「서문」과 시점 인물로 본 시대인식

로카의 『흑조』는 메이지사회를 해부한 소설로 문학사에서 사회소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 작품은 메이지 초기 일본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약자에 대한 연민을 보이며, 제국주의에

6) 손동주 외 번역(2010) 『흑조』 부경대학교출판부
 7) 서은선·윤일(2009) 「일본사회소설 『흑조』와 한국 신소설 『은세계(銀世界)』 비교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21집(1), 제25집(2)
 8) 홍善英(2002) 「徳富蘆花『不如歸』と韓国の翻案小説との比較考察」 『日語日文學研究』 43집
 9) 김난희(2015) 「도쿠토미 로카의 『모반론』 소고」 『일본연구』 38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10) 김난희(2014) 「도쿠토미 로카 『자연과 인생』 고찰-서구 낭만주의예술 수용과 관련하여-」 『일본언어문화』 29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11) 細見典子(2015) 「徳富蘆花の初期作品考察- <自然三部作>の成立背景と作品世界を中心に-」 濟州大學 校大學院 博士論文
 12) 손동주 외 번역(2010) 『흑조』 부경대학교출판부

대한 저항을 표출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로카는 이 작품의 앞에 30여 분 동안 끈 강렬한 꿈을 전하는 짧은 글¹³⁾과 형 소호에게 보내는 편지 글을 끼워 넣었다. 이 두 개의 권두 글을 통해 로카는 이 작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꿈을 다룬 「서문」에서는 향후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형에게 보내는 편지¹⁴⁾글을 통해서도 사상가인 형 소호와 문학가인 자신은 서로의 지향점이 다름을 밝히면서 결별을 고하고 있다.

로카는 스스로를 톨스토이·위고·졸라와 같은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소설가라는 자각 하에 이 작품을 쓰고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의 세상은 인도주의의 물결로 넘쳐날 것이며 일본 또한 이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로카의 시대인식임을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흑조』 표지의 「서문」으로서 국민의 계몽을 촉구하고 있는 글이다.

쿠로시오가 우리 해안을 쓸어버리듯이 인도의 흐름으로 우리나라를 쓸어버려라.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일본의 전도는 멀다. 그 국민의 성장에는 반드시 국민의 해탈이 동반되어야 한다. 소설 쿠로시오는 이제 모든 방면에서 해탈하려고 고뇌하는 우리 일본을 주인공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앞날의 명운을 그려내려고 시도한 작품이다. 모두 여섯 편으로 구성할 것이다. 지금 제1편을 발간한다. 다행히도 강호군자의 일독을 기원하게 되었다.

黒潮の我岸を洗ふ如く、人道の流れをして我邦を洗わせしめよ。羅馬は一日にして成らず。我日本の前途は遠し。夫れ国民の成長は必ずや国民の解脱に伴わざるべからず。小説黒潮は今やすべての方面に解脱をなさむとして苦悶せる我日本を主人公として聊か其の消息を傳へ其の前途の命運を描かむと試みたるものなり。全部六卷よりなる。今第一篇を發刊す。幸に江湖君子の一讀を祈る。
(序文 : p.223)

위의 인용으로부터 작품의 제목인 ‘흑조’ 즉 ‘쿠로시오’가 지닌 상징적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다. 쿠로시오는 큰 위용을 지닌 거대한 규모의 해류이다¹⁵⁾. 로카는 위의 글에서 먼저 거대한 시대정신으로 인도주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심상(心象)으로 채택한 것이 쿠로시오라는 해류이다. 로카는 인도주의라는 거대한 시대정신을 표상하기 위해 쿠로시오라는 제목을 붙였다.

13) 이 부분은 초판에는 실었다가 나중에 삭제했는데 로카의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

14) 「소호 형에게」라는 제목으로 형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흑조』는 본문보다 이 편지글 때문에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15) 쿠로시오는 일본근해를 흐르는 난류로 프랑크톤이 적어 투명도가 높고 검푸른 색을 지녔다. 그래서 흑조라는 이름이 붙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류로 분류된다. 『위키백과』참조

『흑조』의 서문은 일본국민이 각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 각성이야말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일본국민의 각성이 선행되어야 향후 일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파하면서 로카는 일본인이 세계시민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토대는 휴머니즘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흑조』를 「소호형님께(蘇峯家兄)」라고 형에게 바치면서 결별을 고하는 편지이다.

이 소설을 민우사에서 출판할 때 형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지금은 내가 민우사를 떠나 있지만 결국 이 소설을 바칠 사람은 형님 뿐이다. (중략) 메이지 22년 처음 민우사에서 출판한 『브라이트 전』은 형님이 직접 첨삭도 해주었다. 메이지35년에 국민신문에 연재를 시작한 『흑조』제1편의 일부분은 그대에게 힌트를 얻었다. (중략) 형님은 국력의 팽창에 중점을 두어 제국주의를 지지하였으며, 나는 위고 톨스토이 졸라 등의 인도주의 유파의 대의와 나 자신의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이것은 결코 내가 옳고 형이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다. 진리의 산에는 봉우리가 많다. (중략) 서로가 추구하는 취미, 착안점, 동정심이 쏠리는 곳, 요컨대 그 동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결코 숨길 수 없다.

初 斯小説を民友社より出す時、君に獻ぜんと思ひたり。今や余は民友社を去りぬ。然も斯小説を獻すべき者は、竟に君ならざるを得ず。(中略) 明治二十二年に初めて民友社より出版せしブライト傳は、君自ら筆をとって添削せり。明治三十五年に國民新聞に載せ始めし小説黒潮の第一篇は、實に其の一部のヒントを君に得たり。(中略) 君は國力の膨脹に重きを置きて帝國主義を執り、余はユゴー、トルストイ、ゾラ諸大人の流れを汲むで人道の大義を執り、自家の社會主義を執る。余は決して君を非とし、自ずからを是とせず。眞理の山には峰多し。(中略)我等が趣味の傾く所、着眼の向く所、同情の注ぐ所、要するに其動機の相同じからざるは、斷じて掩ふ能はず。

(「蘇峯家兄」pp.3-4)

소호는 일찍부터 평민주의에 입각하여 계몽적 글을 써온 저널리스트이다. 자신이 설립한 잡지사 민우사의 기관지인 「국민신문」의 지면을 통해 일본청년을 고무시키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써 온 논단의 기수였다¹⁶⁾. 로카 형제는 출발점은 같았으나 차츰 멀어져간다. 소호에게 메이지 유신은 풍전등화의 일본을 구하기 위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일으킨 거사였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호는 로카에게 메이지 신정부에 반감을 품고 죽은 지사(志士)

16) 도쿠토미 소호(1863-1957):1887년 민우사(民友社)를 설립 「国民の友」「国民新聞」을 발행한다. 처음에는 평민주의를 제창하였으나 청일전쟁 이후 제국주의를 고취시키는 글을 써서 당시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저술 『吉田松陰』『近世日本国民史』가 있다.

의 자식이 처음에는 정부와 싸우지만 시대가 바뀌고 그 자식 또한 각성하게 되면서 반감은 사라진다는 구상과 함께 연애를 보탠 이야기를 쓴다면 재미있을 거라고 조언을 했다.¹⁷⁾ 소호는 『불여귀』라는 베스트셀러로 이미 유명해진 동생의 필력에 기대어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흑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형 소호의 조언이 있었으며 로카 또한 이 작품의 일부분은 형에게서 힌트를 얻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로카는 소호가 조언한 방향과는 달리 메이지 신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백성의 삶과 괴리되고 오히려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음을 고발하는 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게 된다. 로카는 신정부에 대한 불만과 일본의 장래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는 시점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생각을 대신해서 표출하고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은 히가시 사부로(東三郎, 이후 히가시)라는 몰락한 사족출신 노인이다. 히가시에게는 로카의 심경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 작품의 시점인물 히가시는 다케다 신겐(武田信玄)¹⁸⁾의 영지인 고후(甲府: 지금의 야마나시 현) 출신으로 나온다. 메이지 20년인 1887년 4월에 히가시는 20년 만에 상경한다. 다케다가(武田家)의 가문(家紋)인 마름모꼴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고 왼 쪽 눈에는 붕대를 한 실제 나이는 50대 후반의 초라한 노인이다. 히가시 노인은 유신 이후 삿초(薩長) 정부에 대한 울분을 품고 20년 동안 고후(甲府)에 은거해 글방 운영과 농사를 지으며 근근이 살고 있었으나 영국에서 유학 중인 외동아들 스스무(晉)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직에 출사할 생각으로 상경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히가시 노인이 유신을 감행한 주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메이지 유신은 사쓰마 번(薩摩藩)과 초슈 번(長州藩)이 주축이 되어 성공시킨 혁명이다. 이들은 나중에 신정부의 유력자가 되어 국가를 경영한다. 로카의 출신지는 구마모토 번(熊本藩)으로 고후(甲府) 출신인 히가시의 경우처럼 혁명의 중심세력이 되지 못하고 소외된 세력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소외된 구마모토 번은 일찍이 서양의 선진문물과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뒤쳐진 초조함을 만회하려 했는데 그 하나가 서양의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는 양학교(洋學校)의 설립이었다. 히가시 노인이 자식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 선진문물을 배우게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구마모토 번은 서양인 교육자를 초빙하여 ‘구마모토 양학교(熊本洋學校)’¹⁹⁾를 설립했으며, 이 학교에서 로카의 누나와 형 사촌들이 수학한다.²⁰⁾ 로카와 소호(蘇峰) 형제가 기독교 휴머니즘에

17) 『富士』(제3권 제6장) p.456(『富士』는 로카의 자전소설이다.)

18) 武田信玄(1521-1573)은 전국시대의 무장으로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자웅을 겨루었다.

19) 1871년 구마모토 성(熊本城)안에 설립된 번립(藩立)학교. 요코이 쇼난의 조카인 요코이 다이헤이(横井大平)가 미국에서 귀국 후 서양문화를 들여오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진언하여 설립하게 되었다. 남녀공학이며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연설교육도 행해졌다.

20) 細見典子(2015), pp.13-14 참조

토대한 평민주의 사상을 함양하게 된 내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사상가 소호는 일본이 제국주의 노선을 지향하는데 편승하게 되고, 소설가 로카는 인도주의의 토대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휴머니즘의 경향을 점점 강화하게 된다. 소호와 로카 형제는 이처럼 시대의 물결 속에서 각각 다른 길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결별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다. 형제의 기질의 상이함은 『흑조』의 등장인물인 사부로(三朗)와 주로(十郎)형제에게서도 발견된다. 실생활에서 로카 형제의 기질의 상이함은 작중 인물 사부로와 주로에게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초 『흑조』를 전체 여섯 편으로 구상하여 제1편을 발표하였으나, 나머지는 완성하지 못한 것은 집필 과정에서 생긴 로카의 사상의 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작품은 로카라는 구마모토 번 출신 작가가 주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권력 핵심에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로카 역시 신정부가 한 일을 총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데에 고뇌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이 로카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했으며 작품을 중단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추론한다. 메이지 유신을 결행해야만 했던 세력은 일본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 낸 우국충정의 세력이라는 것을 로카 또한 부인할 수 없었다. 로카의 글에는 메이지 천황에 대한 외경심이 넘치며 메이지 천황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보여 왔다²¹⁾. 이러한 로카의 성향이 천황제와 제국주의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발견하는데 이르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시대인식이 이 작품을 장편으로 진행시키는데 저해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나중에 간행된 전집에서 쿠로시오가 일본 열도를 휩쓰는 꿈 이야기부분의 서문을 삭제하게 된 이유라고 본다.

시점인물 히가시 노인은 정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오랜 동안 은거해 있던 아웃사이더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유신의 주체와 유신의 주변을 대비함으로써 상대주의적 시야를 견지하려고 고심한다. 마침내 중심과 주변 양쪽 모두가 일본이라는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국의 발전을 바란다는 점에서는 모두 지향점이 같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이 점에서 작가 로카가 심층에서 겪던 갈등과 딜레마는 너무 안이하게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국주의라는 광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소호는 국가주의를 표방하게 되고 로카는 개인의 삶에 천착하게 된다. 그러나 로카는 형의 길이 틀렸다고 단언하지 않고 “진리의 산에는 봉우리가 많다”고 말함으로써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처럼 형제의 기질이 달라서 동행할 수 없음을

21) 1868년생인 로카는 메이지 연호와 함께 시작하는 자신의 나이에 긍지를 느끼고 살아왔는데 1912년 메이지천황이 서거하자 자신의 인생이 중단된 듯 상실감을 느꼈다는 소회를 수필 『지렁이의 헛소리(みみずのたわこと)』에 쓰고 있다. 『みみずのたわこと』「明治天皇の崩御」 참조

강조한 것이지 형의 길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에서 작품의 한계는 이미 예견되었다.

유교적 덕치사상과 기독교 휴머니즘이라는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창작을 해 온 로카로서는 메이지 신정부 관료들의 행태가 개탄스럽지만 이들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작품 「제7장」 전체를 구성하는 히야마(檜山) 별장에서 펼쳐지는 고관대작들과 히가시의 설전은 로카의 갈등을 축약하고 있다. 「제7장」은 이 작품의 핵심을 함축하는 매우 중요한 장(章)이다. 『흑조』는 결말인 「제13장」과 「제14장」에서 히가시 노인이 패배를 자인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다. 이는 인도주의를 시대정신으로 표방한 작품인 『흑조』가 당초 계획한 6권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했다. 이것이 당시 지식인이 처한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관직을 포기하고 낙향한 히가시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아들이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 로카는 히가시를 통해 신정부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으나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에 천황제가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이는 천황을 윤리적 도덕적 화신으로 주입시킨 메이지 군민일체 사상교육의 영향으로 간주된다. 톨스토이와 유교의 인도주의는 사해동포(四海同胞)주의이며 반전(反戰)주의이다. 애초의 집필 의도는 퇴색하고 소호의 노선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로카 역시 국가존망과 관련해서는 초기의 소신이 후퇴하고 힘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대인식을 표방함으로써 소극적인 국가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흑조』는 영국에서 귀국한 아들 스스무에게 남기는 유언으로 끝난다.

스스무야, 스스무야, 학자가 되지 마라. 상인이 되지 마라. 알겠니. 정치가가 되라. 지금의 세상을 바꾸라.

晉、晉、學者になるな。商人になるな 宜いか、政治家になれ 今の天下をとって覆へせ
(徳富健次郎(1927)『黒潮』제14장, p.319)

아들 스스무에게 정치가가 되라고 한 유언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일까? 다음 세대는 학문을 해서 인격이 도야된 정치가가 출현하여 도의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라는 복고적인 사상이 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로카에게는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있으며 정치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음을 본다.

스스무가 유학을 가서 절치부심하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은 일본의 장래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며 중국에는 국가를 위한 인재가 되어야 한 한다는 ‘국가를 위한 재목(國家有爲の材)’으로 표상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함의되어 있다.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메이지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일본은 타락해

있으나 다음 세대는 각성된 지도자가 많이 나와서 위대한 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로카의 문학세계는 낙관적 세계관을 보이며 그 낙관성이 안이한 도출을 이끌고 말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사회비판의 양상

3.1 서구화 정책과 로쿠메이칸

『흑조』는 「제1장」 모두(冒頭)에 ‘로쿠메이칸(鹿鳴館)’을 연상시키는 ‘유유관(呦呦館)’에서 열리는 화려한 연예회의 광경부터 서술된다. 작품의 시간은 메이지 20년(1887년)으로 화려한 로쿠메이칸 시대이다. 메이지시대 실제 행해졌던 무도회나 행사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육십 대 중반으로 보이는 애꾸눈의 비쩍 마른 노인과 함께 사십대 중반의 살찐 후지사와 백작이 등장한다. 노인이 로쿠메이칸의 내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적이다. 유신을 성공시킨 이후 신정부가 추진해온 서구화 정책은 국외자(局外者)인 히가시 노인의 눈에 한심스러운 추태로 비치고 있다. 히가시 노인이 보기에 신정부는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으며 지배층은 사치와 향락으로 지새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있다. 히가시는 백성들의 삶이 도쿠가와 봉건시대보다도 힘겹다고 말한다.

일찍이 로쿠메이칸에서 이루어지는 무도회나 바자회 행사는 메이지 신정부의 서구화 정책의 표상으로서 일본의 정체성을 상실한 경조부박한 것으로 비판되어 왔는데, 로카의 시선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에르 로티의 표현을 빌자면 “일본과 프랑스 16세기를 합금”²²⁾한 우스꽝스러운 추태이다. 유유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골계를 나타내기 위해 산유테이 엔초(三遊亭円朝)²³⁾의 작품을 연기하는 배우와 서양식 화려한 정장을 한 화족 부인들을 병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병치는 시대착오적 모순을 느끼게 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나란히 함으로써 아이러니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포치한 문학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22) 피에르 로티의 「에도의 무도회」(p.63), 김난희 「아쿠타가와와 『무도회』 고찰—피에르 로티의 「에도의 무도회」와의 비교」 참조

23) 三遊亭円朝(1839-1900) : 에도 출신의 만담가(落語家)로서 인정과 괴담을 다룬 자작(自作)을 많이 남겼다. 대표작 『塩原多助』 『牡丹灯笼』이 있다.

메이지 이십년(1887) 4월 초순, 도쿄의 고지마치구에 있는 아마시타정 유유관에서 기부인들이 주최하는 연예회가 열렸다. 연예회는 지체 높은 분의 뜻을 받들어 해상방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천황께서는 칙어와 함께 수종의 돈 30만 엔을 하사하셨으며, 총리대신은 그 취지를 각 지방관에게 전하여 전국의 부호들에게 현금을 독촉, 당일 어용신문은 사설란에 대서특필하여“우리들 상류층 기부인들이 천황의 어의를 체현하여 이 고귀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쓴 것을 보면 평범한 자선 연예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黒潮』第一章 (一)、pp.7-8)²⁴⁾

위의 유유관의 위치인 도쿄의 고지마치구(麹町区)에 있는 아마시타정(山下町)은 로쿠메이칸의 위치와 그대로 합치된다. 유유관의 ‘유유(呦呦)’와 로쿠메이칸의 ‘녹명(鹿鳴)’은 각각 ‘호느끼는 울음소리’와 ‘시슴의 울음소리’라는 뜻을 지녀 꽤러디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또 위의 인용문에는 근대국가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도 드러나 있다.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해상방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예회가 개최된 것이며 신정부의 핵심권력이 주축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모금하고 있다. 대부분 신홍자본가들이 자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작위를 받거나 승격을 한다. 애국이라는 명분 뒤에는 어두운 거래가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백성을 쥐어짜는 착취로 이어진다는 냉소적인 시선을 읽어낼 수 있다.

여기에 언론이 나팔수가 되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일본은 서구에 뒤쳐졌다는 초조함을 메우기 위해 로쿠메이칸이라는 서양식 건물을 만들어 서양식 무도회와 바자회를 열어서 대내외적으로 과시했으나 이런 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왜곡된 발상임이 판명되었다. 그들은 이 밖에도 서양을 따라잡기 위한 명분으로 다양한 것을 고안해 냈다. 많은 일본인들이 서양에 가서 배우고 오겠다고 양행(洋行)을 했지만 그들이 배워온 것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였다. 그 일례가 등장인물 기타가와(喜多川)백작이다. 기타가와 백작은 유신 이후 서양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했으나 3년간 체류하면서 배운 것이라고는 사격과 트럼프, 샴페인 구별법과 당구라고 폄하되어 서술된다. 이는 당시 일본인의 서양 심취는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 화려함에 현혹되어 있으며 근대 서양이 성취해 낸 저력과 정신성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타가와와는 메이지유신 후 재빨리 서양을 보려고 유럽행 3년간 체류했으나 각성이 없었다. 배운 것은 사격 트럼프 샴페인 구별법과 당구 사창가에 다니는 것 풍채가 좋고 외국어를 조금할

24) 이 논문 <3장>부터의 인용문은 한글 번역문만 쓰기로 한다. 허용된 지면 수의 제한과 함께 작가가 사용한 한자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라서 찾을 수 없다는 애로 때문임을 밝혀둔다.

줄 안다. 끝만 번드르르하고 의외로 능력이 없다. 「제4장」(6)

로쿠메이칸을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기타가와라고 말할 수 있겠다. 기타가와는 서양에 가서 향락적인 것을 흡수하고 실질적인 것은 배우지 못한 경박한 인간이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암적 존재이다. 조약개정을 위해서 고안해 낸 로쿠메이칸 무도회에 대해 히가시는 불평등 조약은 “일본이 힘을 기르고 시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개정이 되는 것이지 춤을 추었다고 가능해지지는 않는다”는 말로 정곡을 찌른다. 로쿠메이칸과 서양행의 유행은 일본의 근대화 정책의 암부(暗部)로서 맹목적 서양추종을 잘 말해주고 있다.

3.2 정경유착(政經癒着)과 언론

『흑조』는 정치가와 재벌이 유착된 부패상과 언론의 일그러진 활약에 대해 많이 할애되고 있다. 이는 로카 자신이 언론사에 몸을 담고 활동한 경험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특히 로카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삿초(薩長)세력의 번벌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삿초의 유력 정치가로는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있다. 작품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후지사(후지사(後地) 이후, 후지사(後地) 이후)와 시게미츠(藤沢茂光 이후, 후지사(後地) 이후)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후지사(후지사(後地) 이후)와 처럼 유신의 주역으로서 신정부의 요직을 거머쥔 정치가들은 하나 같이 수완가이지만 도덕적으로는 부패한 세력임을 고발하고 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공리적이고 노회하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사치를 일삼고 있는데 사치는 성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보상이라고 자기합리화를 한다.

「제6장」은 후지사(후지사(後地) 이후)가 자신의 성공을 대상화하며 도취에 빠져있는 장(章)이다. 후지사(후지사(後地) 이후)는 비천한 태생의 자신이 혼자 힘으로 일본의 제1인자의 지위에 올랐음을 반추하며 스스로도 대견하게 여기고 있다.

대국을 보는 안목이 있고 학식이 있어 서양문명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과 입헌정치가이며 경제가로서 자격을 갖춘 자가 바로 나다. 「제6장」(1)

후지사(후지사(後地) 이후)와는 자화자찬하듯이 총명하고 권모술수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과 정보가 자신에게로 집중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후지사(후지사(後地) 이후)를 통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권력의 중심에 후지사(후지사(後地) 이후)가 있다. 후지사(후지사(後地) 이후)의 주위에는 이익을 좇는 무리들이 득실거리고 서로 유착하여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제4장」(5) “삿초 다이묘들과 특별한 연줄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난했다”라는 대목에서 삿초 번벌 정치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후지사와의 성격에 대해 “충명 냉혈한”이라고 규정한다. 상황과 인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충명함을 지녔으며 조그만 실수와 허점도 허용하지 않는 냉혈한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이해타산으로 결정한다. 후지사와는 스도 다다시(須藤正)라는 눈과 입의 역할을 하는 비서를 통해 항간의 정보를 입수하고 정치적 라이벌들과 방해세력의 동태를 파악한다. 오이타(大井田)와 쓰치야(土屋) 같은 사람은 번벌정치에서 밀려난 세력으로서 재야에서 언론을 무기삼아 후지사와 일당을 견제한다. 이를 못마땅해 하는 후지사와는 “저런 놈들의 연합은 핵심을 하나 빼버리면 해체되어 제대로 일을 못해. 내버려둬”라고 말하면서 치밀한 권모술수 계책을 세운다. 로키는 삿초가 행하는 번벌정치에 대해 “악취를 뿜어낸다. 독가스를 뿜어낸다.” 라고 강도 높은 역겨움을 표현하는데 이는 구마모토 출신으로서의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제6장」(4)에서 후지사와는 “지난 달 해방비 헌금에 대한 상으로 정육품으로 승격된 호상 오타니(小谷)가 보낸 편지”를 읽는 모습이 나온다. 유신 이후 정상배들이 출현하여 유착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제4장」(6)의 “법률이라는 것은 원래 거물급을 봐 둔 채 힘없는 자만 형벌에 처하는 편리한 도구”라는 대목에서 법이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허울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은 배금주의가 만연한 시대상도 보여준다. 「제10장」(5)에서는 왕족의 후예인 우메즈(梅津)자작의 입을 통해 “지금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고 돈이 기본이다.” “금고에 돈이 넘쳐나야 정치가나 유지들이 인사를 한다.”라고 말한다. 왕족마저도 체면과 명예보다는 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돈의 위력이 발휘되는 메이지 신흥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은 흥청망청 사치를 일삼고, 한탕주의를 꿈꾸는 야심가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정신이 황폐해 가는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어의(御醫)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히가시의 동생 아오야기 의사 역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돈의 맛을 알고 원만한 처세술을 발휘하고 있다고 작가는 꼬집는다. 시골의 어촌인 누마즈의 어부 조차도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돈벌이를 하는 것이 정해진 이치다. 「제11장」(5)”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이와 같이 세상은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돈의 위력을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변해버렸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정치가와 신흥상인 그리고 언론이 유착하여 부패의 고리를 형성하고 전횡하고 있음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히가시는 삿초 위정자들을 향해 그들이 사치를 줄이고 근검하게 살면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조세부담을 덜 수 있다고 일갈한다. 히가시는 후지사와 일당과 설전을 벌여 그들을 궁지에 몰고 격분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시류에 뒤쳐졌다는 자괴감이 든다. 히가시 노인이 아무리 삿초 번벌세력을 향해 빼아픈 비난을 쏟아 부어도 그들은 공고한 세력으로서의 응집력을 보이며 교묘히 예봉(銳鋒)을 피해 나간다. 반정부를 표방하는 정론(政論)위주의 재야신문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고

자 재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히가시는 강경한 논조의 사설을 실어 주목받는 ‘도쿄신문’에 아들 스스무가 관련된 것을 알고 내심 희망을 키운다. 한창 기대를 걸 무렵 정부는 보안조례²⁵⁾를 발효시켜 주필을 유배시켜버린다. 신문지조례와 보안조례는 메이지 신정부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악법이다. 작품에는 신문지 조례의 범망을 교묘히 피한 「소신문」이 암약하는데 「소신문」은 정론위주의 「대신문」과 대비되는 가십거리 위주의 신문이다. 「소신문」은 상류층의 사생활의 은밀한 부분을 폭로하고 약점을 들추어내서 공갈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며 기생적으로 살아가는 신문이다. 위의 기타가와 백작은 자신의 어두운 사생활을 보호할 겸 재야의 신문사에 거금을 기부함으로써 정계입문을 기도한다. 자본을 확보한 언론은 돈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강한 논조의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가와와는 자신이 투자한 재야언론사의 혜택을 누렸으나 「소신문」잡보란(雜報欄)에 가정의 치부가 폭로됨으로써 곤혹스럽게 된다. 기타가와 같은 유형의 인물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 사회가 낳은 괴물이다. 다음은 기타가와 백작에 대한 묘사이다.

기타가와 백작은 백성을 괴롭혀서 모은 금궤로 점차여색을 탐함 얼마 후 부인과 사별, 서른 살에 상처를 하고 자식도 없다. 다이묘 가문에서 태어나 풍족하게 살았지만 글을 공부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랐다.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신을 다스릴 줄도 모른다. 천성이 악하지 않음에도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장」(6)

위의 기타가와와는 같은 저열한 화족들과 샷초로 대변되는 부패세력이 활개를 치는 유신정부에 절망한 히가시는 상경을 후회한다. 부패한 세력에게 빌붙어서 관직을 얻어 연명하는 것은 무사의 수치라는 결정을 내리고 관직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내면의 승리감을 맛보고 있다.

『흑조』는 인물의 성격묘사와 심리묘사가 탁월하고 작가의 비평안이 잘 발휘된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조』의 결말이 히가시의 패배로 결론이 난 것은 비판의 날을 세웠던 유신정부를 결국 인정하는 것이 되었으며 안이한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 로카의 내면적 갈등의 드라마가 응축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5) 막부가 구미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개정은 외교적 과제였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심의를 하는 정부의 저자세는 자유민권운동가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그 밖에도 지조경감·언론집회의 자유를 위치는 민권운동가들의 지속적인 정부비판이 전개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는 1887년 12월 25일에 서둘러 보안조례를 공포하고 즉시 실시한다. (『明治事物起源事典』pp.78-79)

3.3 축첩제(蓄妾制)와 가정비극

『혹조』에는 후지사와의(藤沢) 기타가와(喜多川) 히야마(檜山)등의 축첩이 대표적 사례로 나온다. 다음은 후지사와의에 대한 대목이다.

그녀는 백작의 수많은 여인 중 한명으로 고이토 혹은 오이토로 불리는 행운아이다. 후지사와의는 관저, 사저, 별장 등이 있어서인지 부인도 공처, 사처, 임시처 등 각 종류별로 있다.

「제6장」(3)

일본을 짊어질 정도인 내가 여인 다섯에서 열 명 쯤과 놀았다고 해서 무슨 흠결이 되겠는가.

「제6장」(2)

메이지시대 정치가로 활약했던 실존인물들은 실제로 처첩을 두고 살았다. 이토 히로부미의 축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작품 속에서는 후지사와의에 빗대어 언급되고 있다. 메이지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토 내각에서 외상(外相)을 지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경우는 게이샤 출신의 아내를 맞이하여 로쿠메이칸 무도회의 여왕으로 등극시켰다. 로카한테는 이러한 행태는 문명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야만(野蠻)이라는 인식이 보인다. 이러한 자들이 정재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일본의 앞날은 암담하다는 로카의 시각은 계몽가로서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아오야기 부인의 입을 통해「제4장」에서 서술되는 축첩관련 내용을 발췌했다. (편의상 ㉠을 붙였다)

- ㉠ 후지사와의에게 무참히 당한 여자들의 수를 헤아린다면 천명도 넘는다.
- ㉠ 히야마라는 사람도 얌전해 보이지만 첩을 세 명씩이나 곳곳에 두고 있다.
은인의 딸인 자신의 처를 미치광이라면서 방에 가둬 하루에 매실과 주먹밥 두 개만 넣어주고 옆방에서 몸종 출신 첩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해요.
- ㉠ 부인을 발로 차서 죽이고 기녀를 부인으로 맞이한 사람도 있다더군요.
- ㉠ 기타가와는 천한 출신 여자를 데려다 아들을 낳고 정숙한 본처를 쫓아냈다고 해요.
- ㉠ 기타가와는 바뀐 첩만 해도 이미 열 명이 넘고 첩이 낳은 아이는 모두 딸인데 셋이나 되었다.

위의 인용 외에도 축첩에 관련한 많은 예가 나온다. 메이지 신정부는 서구의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부분에서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였으나 메이지 민법에서는 축첩제가 여전히 통용되었다. 남성이 처와 첩을 동시에 두어도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았으며, 본처 쪽에서 남편이 첩을 두는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 할 수도 없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엔치 후미코(円地文子)의 『온나자카(女坂)』²⁶⁾가 있다. 이 작품은 메이지시대 초기를 살아가는 상류층 여성의 비극적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온나자카』에 등장하는 인물 시라카와 유키토모(白川行友)는 아내 도모(倫)를 신뢰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등 아내 도모를 극진히 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만 여자로 보지 않는다. 유키토모는 자신의 욕정을 채워줄 젊은 첩을 끝없이 갈구하며 아내 도모에게 첩을 구해 오도록 거금을 주고 임무를 맡긴다. 도모는 정성을 다해 세키(関) 스가(須賀) 유미(由美) 등 남편의 젊은 첩들을 구해오고 같은 집에서 아무런 내색도 않고 묵묵히 함께 살아간다. 겉으로는 태연한 듯이 보여도 도모는 마음 속 깊이 한이 맺혀 병이 들고 만다. 마침내 유언장을 통해 남편에게 “나의 장례식은 치루지 말 것이며 강물에 풍덩 버리면 충분하다²⁷⁾”고 원념(怨念)을 토로한다. 이처럼 메이지시대 초기는 근대를 맞이했음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가부장제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갇혀 인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흑조』의 사다코(貞子)와 『온나자카』의 도모(倫의) 삶은 봉건제 윤리에 갇혀 신음하며 살아가는 정숙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으로서 증첩된다. 메이지 시대는 상류층 여성들의 경우도 인권이 취약했으며 이로 인한 가정비극이 종종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로카는 일찍부터 기독교 휴머니즘 정신을 받아들인 크리스천 작가이다. 로카의 어머니 히사코(久子)와 어머니의 자매들 또한 기독교의 일부일처 도덕에 이끌려 기독교 세례를 받았으며 당시 선각적 여성으로서 금주(禁酒) 폐창운동 등 사회 활동을 활발히 했다. 『흑조』의 사사쿠라 자작부인에게 로카의 숙모 야지마 가지코(矢嶋楯子)²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제9장」(6)에서 사사쿠라 부인은 “국회가 열리면 맨 먼저 폐첩건의를 올려야한다”라고 설교한다. 남자들의 난폭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사사쿠라 부인이라는 여성의 입을 통해 말해지고 있다.

로카는 성장환경의 영향으로 일부일처제를 이상적인 결혼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민우

26) 『女坂』는 1949년-1953년에 걸쳐 단속적으로 잡지에 발표되었다. 1957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노마문예상(野間文芸賞)을 수상한 엔치 후미코의 대표작이다.

27) 「私が死んでも決してお葬式なんぞ出して下さいますな。死骸を品川の沖へ持って行って、海へざんぶり捨てて下されば沢山でございますって..」 『女坂』p.204

28) 矢嶋楯子(1833-1925)는 여성교육가·사회개량가로서 기독교에 입신한 후 동지를 규합하여 禁酒·廢娼 등을 내건 부인교풍회(婦人矯風會)를 창설, 국제적으로 활동했다.

사' 기자시절 서양의 훌륭한 여성들을 소개하는 『세계고금 명부간(世界古今名婦鑑)』(民友社 1898)을 집필하기도 했다. 로키는 일찍부터 남녀동등 사상에 눈을 뜬 시대를 앞선 지식인이었다. 평소 약자에 대한 연민이 많은 그는 남성중심 가부장제 사회에서 신음하는 여성의 부조리한 운명에도 깊은 통찰을 보였다. 수필 『자연과 인생(自然と人生)』에 나오는 「가련아(可憐兒)」라는 소품과 장편소설 『불여귀』에서도 봉건적 가족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불행한 여성의 운명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인권에 자각이며 인권존중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상처(喪妻)한 기타가와 백작은 젊고 아름다운 사다코한테 한 눈에 반해 청혼하고 후처로 맞이했으나 딸이 태어나고 이삼년 만에 다시 첩과 기생들을 두는 방탕한 삶으로 회귀한다. 이는 기타가와와 천성이 천박하기 때문이며 천박함은 천박함에 끝된다는 유유상종의 원리로 작가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사다코는 남편과 대조적인 성품을 지닌 인물이다. 다음은 「제4장」에 나오는 사다코에 대한 묘사이다.

- ◎ 전통적인 왕조미인의 고귀한 자태 「제4장」(4)
- ◎ 매화같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 「제4장」(5)
- ◎ 『온나이마카와(女今川)』 『온나테인킨(女庭訓)』 『열녀전(烈女傳)』
조대가의 『여계(女戒)』를 들려주면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같은 종류는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 「제4장」(5)
- ◎ 사다코의 부친 우메즈 아키후시는 왕족으로서 청렴하고 의리가 굳고 성실하지만 가난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았다. 「제4장」(5)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사다코는 몰락 왕족의 후예로서 부모로부터 청렴과 강직함을 물려받고 봉건적인 여성의 도덕으로 정숙하게 훈육되었다. 로키는 사다코의 삶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여성의 도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다. 서양 체험을 한 남편 기타가와가 사다코를 향해 시대착오적이며 낡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나를 일리가 있다. 누마즈에 유쾌시키고 딸과 격리시켰지만 기타가와는 아내의 정절을 믿고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기타가와는 자신과는 달리 천성이 고결한 아내를 경원했으며 영원히 세상과 격리시켜 자신만의 소유로 하고 싶은 가학적인 심성의 소유자로 보인다.

사다코는 왕족이었던 집안의 대를 잇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치실세인 후지사에게 동생 문제로 청탁하러 간 것이 빌미가 되어 비극적인 삶을 가속화하게 된다. 사다코처럼 가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여성이 과연 칭송받을만한지 반문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여성의 도덕이 요청되는데, 사다코는 인종(忍從)이라는 봉건 도덕률에 갇혔기 때문에 비극을 맞이한 여성이다. 이에 대비되는 새로운 여성상으로 제시된 것이 사사쿠라 자작 부인이다.

「제9장」(1)에서 사사쿠라 부인은 “아무리 여자라도 착한 것만 으로는 살아남지 못해요. 보세요. 사다코씨는 참기만하고 수동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기타가와씨가 우쭐해져서 제멋대로 구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로카의 선각적인 여성관을 엿볼 수 있다.

로카가 여성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자라온 환경과 함께 자신의 처지와 여성의 처지를 약자라는 입장에서 동일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로카는 『흑조』에서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불행을 큰 줄기로 다루고 있다. 기타가와 백작의 정실부인인 사다코와 그녀의 딸 미치코(道子)의 불행한 삶을 애절하게 그려냄으로써 메이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사다코 부인은 자결로서 결백을 증명하고 생모를 잃은 딸 미치코는 어머니의 유훈대로 비구니가 된다. 이러한 가정비극은 축첩이라는 야만적 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로카는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4. 마치며

본 논문은 먼저 『흑조』의 권두에 놓인 「서문」 두 개와 히가시 사부로(東三朗)라는 시점인물의 시각으로부터 로카의 시대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메이지시대 사회상의 비판에 대해 살펴보았다. 로카는 『흑조』 서문에서 인도주의를 시대정신으로 규정하고 일본국민이 해탈하여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사회를 과감하게 해부하고 일본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총6권을 목표로 집필을 시작했으나 제1권만을 간행한 채 중단하고 말았다는 데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논자는 로카의 내적 갈등이 안이한 타협으로 해소됨으로써 중단되었다고 도출했다.

본고는 『흑조』에 나타난 로카의 사회비판의 양상을 무분별한 서구화 정책·정경유착과 언론의 역할·축첩제와 가정비극으로 대별하여 고찰했다. 히가시 노인의 시점은 유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 주변인의 시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주변인은 중심에 매몰되지 않은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히가시 노인이 바라보는 유신정부는 혁명예의 기대를 배반한 세력이다. 그러나 차츰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던 일본을 구해낸 공적이 있다는 분열적 인식이 발견된다. 이는 다름 아닌 로카의 갈등이라고 도출했다. 히가시가 관직

을 포기하고 낙향하여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다는 작품구도 안에는 로카가 봉착한 내면의 드라마가 나타나 있으며 이것이 당대 지식인이 보인 한계라고 보았다.

작가는 시점인물을 통해서 유신 이후 20년 동안 이룬 일본사회를 해부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암부에 대해 신랄하게 파헤쳐 보였으나 서문에서 보였던 결기는 차츰 퇴색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조』의 시대배경은 전근대와 근대의 과도기인 메이지 초기의 사회상이다. 메이지 초기는 미숙한 근대의 풍경을 드러냈는데 이는 경조부박한 수박겉핥기의 모습이다. 그 일례가 로쿠메이칸으로 상징되는 서양흥내대기다. 그것은 정체성이 결여된 추태로서 작품에 묘사되어 있다. 관료들과 실업가와 언론은 서로 유착하여 사회전반에 걸쳐서 전횡을 일삼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백성의 고혈을 짜는 일이라고 고발함으로써 작가의 인도주의적 신념을 보여주었다. 『후조』에서 로카는 따뜻한 심성과 불의와 타협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발표 당시 앞선 작품 『불여귀』와 같은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은 살아있는 실세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당대 유력자들을 향해 거침없는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는 결기를 보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카는 일본이 진정한 근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파하였으나 천황과 국민과의 관계는 유교적 가족주의로 이해했으며 천황에 대해서는 윤리와 도덕의 체현이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 이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를 노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서두에 쿠로시오 해류와 같은 거대한 시대정신으로서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세계의 평화에 동참하기 위해 일본이라는 작은 섬을 깨고 나오기를 촉구했으나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세계시민으로서 일본국민이 각성되기를 촉구하면서 집필을 시작한 작품은 신정부의 부패상을 파헤치는데 머물고 인류에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근원에는 닿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 김난희(2014)「도쿠토미 로카 『자연과 인생』 고찰-서구 낭만주의예술 수용과 관련하여-」『일본언어문화』29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 _____ (2015)「도쿠토미 로카의 『모반론』 소고」『일본연구』38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 _____ (2016)「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무도회』 고찰- 피에르·로티의 『에도의 무도회』와 비교-」
- 서은선·윤일 역(2009)『후조』부경대학교출판부
- 서은선·윤일(2009)「일본사회소설 『후조』와 한국 신소설 『은세계(銀世界)』 비교연구」『동북아문화연구』제21집(1)
- _____ (2010)「일본사회소설 『후조』와 한국 신소설 『은세계(銀世界)』 비교연구」『동북아문화연구』제25

집(2)

洪善英(2002)德富蘆花『不如歸』と韓国の翻案小説との比較考察『日語日文學研究』43집, 2
 湯本豪一(1998)『明治事物起源事典』柏書房, pp.78-79
 円地文子(1972)『女坂』新潮社, p.204
 関口安義(2010)「恒藤恭と芥川竜之介—「謀叛論」を介在して—」『大阪市立大学紀要』2, pp.40-55
 徳富健次郎(1928)『黒潮』(蘆花全集7권) 蘆花全集刊行會
 徳富蘆花(1976)「謀叛論」『現代日本文學大系』筑摩書房, pp.261-266
 _____(1928)『富士』(蘆花全集17권) 蘆花全集刊行會, p.456
 _____(2005)『みみずのたわごと』『現代日本文學大系』pp.226-228
 中野好夫(1984)『蘆花徳富健次郎』筑摩書房, pp.94-142
 細見典子(2015)「徳富蘆花の初期作品考察-自然三部作の成立背景と作品世界を中心に-」p.14
 前田河広一郎(1938)『蘆花伝』p.388
 村上菊一朗・吉永清 共譯(1942)「江戸の舞踏会」『秋の日本』青磁社, p.63

논문투고일 : 2017년 03월 21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1일
 2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16일

<要旨>

도쿠토미 로카『흑조(黑潮)』고찰

- 시대인식과 사회비판 양상을 중심으로 -

김난희

이 논문은 메이지 시대의 문호 도쿠토미 로카의 『흑조』를 사회비판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했다. 로카는 민우사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탁월한 영어실력으로 해외의 시사정보를 섭렵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메이지 신정부의 일탈과 당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 논자는 작품의 사회비판의 내용을 서구추종, 정치 경제 및 언론의 유착, 축첩제의 폐해로 대별하여 분석·고찰했다. 그리고 시점인물이 주변인이라는 위상에도 주목했다. 주변인의 관점은 중심에 머물되지 않는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로카는 구마모토 출신으로 유신의 중심세력이 아니었다. 그래서 허가시 사부로라는 고수 출신의 몰락 무사를 내세워 유신정부를 해부하고 비판했다고 도출했다.

로카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각적인 태도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여성의 취약한 인권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당시의 유력자들은 처첩을 거느리고 사는 것을 당연시했으며 세상도 그들에게 관대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로카는 축첩이라는 인습이 일본을 낙후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나아가 가정의 파탄과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작품의 큰 줄기로 다루고 있다. 이는 로카가 함양한 기독교 휴머니즘과 줄라·위고·톨스토이 등의 인도주의 작가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다만 로카는 제국주의와 천황제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데까지는 인식이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했다고 고찰했다.

A Study on Roka Tokutomi's "Kurosio"
Kim, Nan-Hee

This paper examined the 'Kurosio' of Roka Tokutomi. I analyzed i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ritic novel. Roka has been a journalist for a 14 years at the Min-yusya. He was able to understand overseas situations based on his excellent English ability. He could point out the deviations and contradictions of the Meiji new government with a lo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is paper reviewed the content of social criticism in terms of western followers, the coalescence of politics and the media economy, and the system of concubinage. And I looked at the outsider hero. The outsider is not buried in the center and can maintain an objective distance. Roka was from the Kuma-moto, not the central force of the revolution. Likewise main character Higashi-Saburo was from Go-syu, not the central force.

Roka showed a very progressive feminine perception at that time. He was writing a novel that accuses woman of vulnerable human rights in a male-centered society. The influential people took for granted the concubine, and the world tolerated it in those days. Roka recognizes that the concubinage is the cause of the tragedy that destroys human dignity and destroys the family.

This tendency was attributed to the Christian humanism and Tolstoy's humanitarianism.